

## 광명시, 안전불감증...통로에 적치물 쌓아놓고 대피훈련?

대회의실 비상문 연결통로에 의자등 쌓아놓고 방치  
무용지물된 피난안전통로...공무원들 의식개선 시급

전문가의 얘기가. 실제로 24일 1층 대회의실에서는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인위원회 정책제안 보고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통로는 여전히 적치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러한 피난안전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소방당국에서는 일정규모의 건물에 대해 계단 등 복도와 통로에 장애물 설치를 강력히 단속하고 혹시 모를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 확보를 위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러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할 시에서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자주 왕래가 있는 비좁은 통로에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마땅할 의자와 책상 등 적치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다"고 민망한 답변을 해 "말을 하지 않으면 시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문제의 통로가 피난안전통로인지 잘 모른다"고 밝히고 "확인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그런 용도의 통로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피

난통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하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문 고 또는 전화민원이 접수되면 지도 점검을 통해 계도와 과태료부과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성업 기자 sy@hyundaiilbo.com



광명시청 제1별관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의자등 각종 적치물을 쌓아 두고있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정성업 기자>

난통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하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문 고 또는 전화민원이 접수되면 지도 점검을 통해 계도와 과태료부과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성업 기자 sy@hyundaiilbo.com



25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에서 김준석 공단 이사장, 배준영 국회의원, 임리안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이 테이프 컷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

중부권 유일 선박 안전성검사-해양안전교육 시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5일 인천 중구 남항 약 2.150평 부지에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해 선박검사 점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중부권 유일의 중소선박 종합 안전관리 시설이다. 인천권역의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 9,747척에 대한 검사 점검을 하며, 이는 전국 선박검사 물량의 14% 수준이다. 특히 수상레저 인구가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집

중된 점을 참작, 인천에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기관손상 사고가 잦은 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상레저 인구의 약 20%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요트·보트 등록 척수도 18%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이 센터에서는 선박 종사자와 수상레저 인구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체험교육도 열린다. 그 외 △중소형 선박검사(원격검사, 정밀검사) △선박 안전 점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활용 친환경 소형어선 건조 기술 교육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임리안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부가 인천에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선박안전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 검사, 해양안전 종합교육, 선박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면서 "최근의 수도권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함께 요트 등의 사전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운영해줄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공단은 어업인과 수상레저 인구 등 정책 고객, 거점형 선박안전관리 시설을 통해 더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선박검사 점검 과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라고 전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 고양시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시의원'은?

문재호 시의원 1위, 손동숙-김해련 시의원 공동 2위



문재호 시의원, 손동숙 시의원, 김해련 시의원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일주일간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제9대 고양시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2023년 '고양시 베스트(Best) 위스트(Worst) 시의원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시정발전을 위한 창조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바람직한 시의원 1위에 문재호 시의원, 손동숙, 김해련 시의원 등이 공동 2위, 신현철 시의원 3위로 선정됐다.

이번 베스트 시의원 선정은 인기투표 형식을 탈피해 기초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적극적 의정활동을 통해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출석 부문, 조례·규칙 재개정 및 발의 부문, 시정질의 부문, 5분 발언 부문 등의 점수를 반영 공신력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베스트 시의원으로서 선정된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공무원 단체에서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돼 영광이며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동숙, 김해련, 신현철 시의원도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특히 함께 나아가는 공무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소통하며 고양시민과 공무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위스트 시의원에 대해서도 실명을 비공개 처리해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다. 압도적인 1위(동점 득표 공동1위)로 선정된 위스트 2명의 A,B시의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정 사유는 리더십 부족, 객관적 판단 미흡, 막말과 인격모독, 불필요한 언행과 행동, 비합리적 막무가내식 의정활동, 고성과 폭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만의 주장, 논리 없는 일방식 질타, 공무원 위에 있다는 생각과 권위적 감질 등이 거론됐다. 고양/고종우 기자 go@hyundaiilbo.com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 의회로 통하네

## 그래서 의회는 뭐하는 곳인데?

하나, 조례 제정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 마련

둘, 예산 심사·승인  
우리 도시 살림살이  
알뜰하게 챙기기

셋, 행정사무감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